예수님의 계획 ❧

고대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천사들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.

대변인 노릇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.
어떤 일을 하셨는가?

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.
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그러자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.
"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?"
예수님은 " 제자들에게 나의 메세지를 남겨 두었다.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"라고 대답하셨습니다.

이에 다소 놀란 듯이 가브리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
"그러나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쩔 셈입니까?"
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.

"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. 그들을 믿는다!"
이 대화의 내용은 전설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틀림이 없습니다.
예수님은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.

기술이 사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.
그리고 프로그램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.
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

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분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됨으로써 그 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.

<제자훈련 셀프 스터디/로버트 콜만 편집>

❦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「더 깊은 묵상」제공